

著作者 所有權 30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案 마련

政府는 컴퓨터프로그램도 知的所有權으로 30年동안 保護토록하는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을 마련, 이를立法예고키로 했다.

科技處가 마련한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案은 특정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내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용된 일련의 지시·명령을 創作的으로 표현한 내용을 創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프로그램의 著作者所有權을 創作 다음 해부터 30년 동안 인정하는 한편 이의 불법 배포 공표 발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法案은 프로그램제작자는 자신의 著作物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침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法案은 또 컴퓨터프로그램著作權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科技處 안에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의 保護는 원칙적으로 大韓民國國民의 것만을 대상으로 하되 外國人의 프로그램은 國內에서 최초로 公開된 것과 國際條約

등에 의해 우리나라가 保護의 무를 지는 국가의 프로그램으로 그 보호대상을 제한했다.

共同著作 프로그램은 共同著作者間의 權利를 똑같이 인정하고 著作權행사는 共同著作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이 ▲

재판절차상 필요한 경우와 ▲ 심의조정에 필요한 때, 그리고 ▲학교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著作者의 權利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法案은 4月16日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고 7月 1일부터 施行할 計劃이다.

第6次 計劃期間중 物質特許 導

輸入自由化·소프트웨어法도 制定

政府는 87年부터 시작되는 第6次계획기간中 物質特許制度를 조기도입하고 國際著作權協約에도 加入하며 소프트웨어法을 制定, 著作權과 같은 개념으로 保護하기로 했다.

經濟企劃院 해외협력위원회가 발표한 第6次5個年計劃(내외 협력부문)에 따르면 政府는 이 기간중에 輸入自由化를 비롯, 서어비스·외환자본·보험 시장 개방도 추진키로 했다.

政府는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우리나라工產品輸出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84년의 2.4%

에서 91년에는 3%로 상승, 세계 8~9위의 工產品輸出國으로進入하게 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선진국과 開途國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政府는 빠른 시일 안에 特許法을 改正, 의약 및 化學物質 자체와 化學物質의 용도에 관한 發明을 不特許조항에서 삭제, 物質特許를 導入키로 했다.

「工業所有權센터」年内設立 物質特許導入등 對備 情報提供 위해

特許廳은 올해 안으로 工業所有權에 대한 각종 情報를 提供해주는 工業所有權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特許廳 또는 韓國發明特許協會산하에 발족된 工業所有權센터는 特許情報를 포함, 하이테크에 관한 最新情報를 企業體에 提供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情報提供機

能 이외에 工業所有權에 관한 각종 研修 및 研究를 위해서도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特許廳은 이외에도 國際的인 세미나와 정보교환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간의 工業所有權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해서도 이 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美國 日本을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特

許情報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국내에서도 이러한 特許情報機關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物質特許導入등 工業所有權의 개방에 대비, 工業所有權센터가 각종 情報提供등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산업 支援센터 設置건의 情報產協등…洪陵 KAIST부지에

韓國情報產業協會등 국내情報產業 관련단체들은 현 洪陵 과학기술원(KAIST)단지에 韓國情報產業 지원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당국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韓國情報產業協會·韓國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大韓電子工學會·韓國情報科學會 등은 관계당국에 낸 「정보산업지원 단지조성 운영」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통해 情報產業의 중요성을 강조, 政府·產學·研이 협력해 情報產業를 발전시킬 수 있는 情報產業支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政府가

이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AIPPI總會 열려 6月 8日 런던에서

國際工業所有權保護協會(AI-PPI)는 第33回 總會를 英國의 런던에서 오는 6月 8일부터 13일까지 開催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會議에서 논의될 주요議題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模造品對策, 商標의 國際登錄을 체결한 마드리드協定에의 가맹문제등이 나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口頭審理 강화 審理節次도 公開키로

特許廳은 特許審判事件에 대해 口頭심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최근 새로 마련한 심판정에서 처음으로 無效審判事件에 대해 口頭審理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書面審理의 口頭審理도 더욱 확대실시해 심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審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特許廳은 審理節次를 公開함으로써 당사자가 불복하는 사례를 크게 줄여 審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